

니까야서 길을 묻다 9. 오늘날 필요한 계(戒) ②

이유 있는 '소유'가 필요하다

계학(戒學)의 존재 이유가 스스로의 확신에 따라 도덕적 완성을 지향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일상의 행위를 스스로 조심히, 단속하고, 제어하는 길로 '계학'을 정의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계(戒)'의 의미를 본연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불교 공부의 전 과정에서 계학의 의미를 밝히고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목만으로는 오늘에 필요한 계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 현실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까닭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덕성, 정신적 성숙, 떳떳함'이라는 말은 그저 위선으로 포장된 무익한 설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처럼 유례없

한다. 이 중 현실적인 지점을 먼저 말하면, 이것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적어도 도심 한 가운데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때 만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할 것이다. 냉면 한 그릇을 시켜서 먹을 때 고기를 덜어내고 먹는다고 육식을 피하는 계를 지키는 것일까?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 속에 숨어 있는 근본정신을 생각한다면, 고기를 빼고 먹는 행위가 계를 지키는 실천이 아니라,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이의 일상 속에 보이는 나와는 다른 생명이 '생긴 풀 그대로' 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모습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의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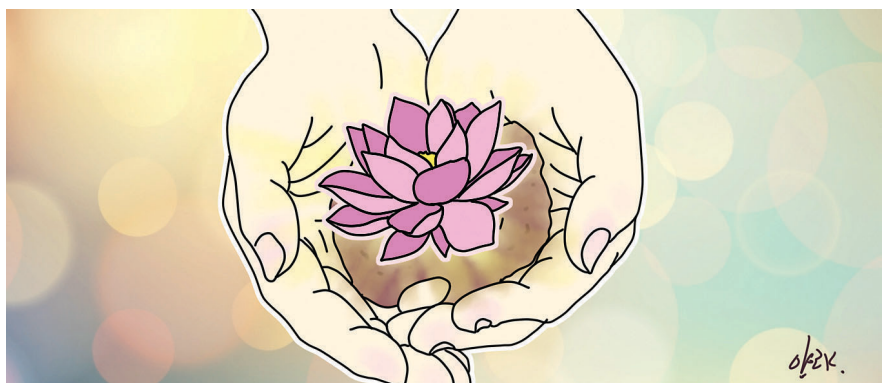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이니 정이니 하는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소리일 것인가를 고려하지 못하면, 이러한 현실 조건을 간과하고 내뱉는 말은 그야말로 공멸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지평이 보이지 않듯,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본질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지평이란 것도 그리 믿음직한 게 못 된다.

이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평가를 '계율'이라는 잣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불살생의 의미 영역을 깊게 하고 넓혀가는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시점에 필요한 계 지킴의 그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생각의 지점은 다르겠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계 지킴'의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恒産) 일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恒心) 가능하지 않다는 맹자의 지적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의 펼침이 의미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은 '무소유의 지향'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표현하면, '의미 있는 소유 행위'는 어떤 형태일까를 묻는 것이다.

니까야 안에서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는 '여실(如實)'의 뜻은 '있는 그대로'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을 본연적 관점에서 풀이하면 '진리, 진실'로 옮길 수 있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생긴 풀 그대로'라는 거친 뜻으로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학의 의미와 위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불살생(不殺生)을 지키려면 모기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되나요, 적당히 술 마셔도 불음주(不飲酒) 계(戒)를 어긴 것일까요?"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비법...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1940년 대전 출생인 송석구 이사장은 동국대 철학과(박사)를 졸업한 뒤 동국대 교수, 총장으로 재직했다. 중앙철학 중에서도 유물사상연구에 매진해 유물사상에 대한 수십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동국대 총장 시절에는 일산 동국대 병원 건립을 주도했으며, 경주캠퍼스 대학체제 개편 등에 앞장 섰다. 또 발전기금으로 725억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동덕여대와 가천대 총장도 지냈으며, 세종시 민간합동위원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유물대상, 일맥문화대상, 청조근정훈장, 동국청우상,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등을 수상했다.

리더에게 聽하다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前 사회통합위원장 · 前 동국대 총장)

바야흐로 갈등의 시대다. 개인 간, 계층 간, 종교 간, 국가 간 갈등 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갈등이 횡행하고 있다. 갈등을 화해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더욱 고조되어가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사회갈등지수가 2위다. 그리고 사회 관리지수는 27위 수준 속에서 사회갈등 비용이 최대 24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회 갈등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독실한 불자이자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송석

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前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 76)은 3월 8일 갈등을 푸는 방법을 중도연기에 입각한 소통에서 찾았다. 송 이사장은 사회를 이루는 인연, 그 매듭을 푸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갈등상황을 풀어나가자고 했다.

불자로서는 보현행원에 입각한 실천이란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다. 하심으로 항상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세가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의 첨경임을 강조했다.

- 우리사회는 최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위기라고 진단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의 위기는 그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정신과 물질 두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인간은 물질에 치중된 삶을 살다보니 정신적인 삶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일반화되며 정신보다는 물질을 위주로 한 삶을 살게 됐다. 현대의 대중들은 물질주의와 배급

주의에 몰두해 죽어간다.

인간적인 휴머니즘,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인연의 마음과 평등, 도덕률과 같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고 있다. 승자독식의 시대가 되고 인간적인 가치는 그 승자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빈곤탈출에 사회적 역량이 집중됐다. 개발독재로 억압된 자유와 권리를 복원하려는 민주화 열망 또한 강렬했다. 1990년대 이후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다양해졌고,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복잡한 갈등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권, 환경, 성평등, 지역, 세대격차 등에 대한 주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양한 가치가 춘추전국시대만큼이나 출몰되며 사회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의 근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중도연기에 대한 자각이 사라진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이뤄진다. 너가 없이는 내가 없다. 또 내가 없이는 너가 성립되지 않는다. 연기는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일즉다 다즉일이라 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

**특별할인 30%**

**양배추 & 야채수**  
맥반석 항아리 증탕가공

100% 국내산 양배추와 야채수를 엄선하여 자연의 맛 그대로 정성을 다해 추출하였습니다.

건강식품의 명가 **미성자연농산**  
주문전화 : 02.897.2613 휴대전화 : 010.6661.8709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 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 (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 (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저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 '중도 연기'에 기반한 '소통'이 답

의 삶 속에 확실하다. 이러한 인식이 깨져버린 것이 갈등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사회갈등 중 특히 계층갈등이 너무나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실질적으로 계층이 있다. 인간사회에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고 그 계층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과제다. 계층이 없는 사회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계층을 좁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계층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계층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사람의 존엄성과 관련된 인권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계층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돌아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며 자본의 격차가 심해지며 이에 따른 갈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균형을 잃고, 오히려 성장 동력도 해치고 있다.

분배기능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이미 미국의 대공황을 거치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말해지는 자연적인 분배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다. 성장을 해야 분배할 것이 있다는 논리도 통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분배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여기서는 중도적 분배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끄는 것이다. 계층적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시간, 임금 등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덜 성숙한 우리나라에서 계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복지를 갖추는 것과 함께 지도층과 부유층의 역할, 기부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젊은 세대는 헬조선이라던지 3포, 5포를 넘어 8포세대까지 비하하고 있다. 세대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십여 년 만에 폭발적으로 세대갈등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산업화 후기로 접어들며 인력의 수요가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로 젊은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고령세대는 그 세대대로 젊은이들이 산업화 시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갈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책적 대안은 있다.

크게 일자리와 문화, 사회안전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성장 문화로 청년층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노년층은 은퇴를 미루는 실정이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최저 임금 수준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분업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

한국사회 위기, 물질주의로 진단  
"공동체정신 없으며 갈등 증폭"  
휴머니즘과 평등의식 회복 역설

중도적 분배로 계층갈등 극복  
세대소통에는 민주적 결정이 큰 힘  
북핵문제는 압박과 대화협력 동시에  
"국민들의 연대의식이 가장 중요"

술선수범 정신과 상호존중 강조  
"보현행원 속 공경·참회가 단초"  
말보다 뜻을 이해하는 소통법 제시



고, 함께 고통을 이겨가는 정책이 강력히 필요한 시대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예술, 체육 등 매개체도 필요하다. 또 젊은 층이 고령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시스템 등도 도입돼야 한다.

이런 모든 활동의 기반에는 '연기'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펼치는 창조경제도 '연기'로 보면 해법이 나온다. 사회구성원들이 경제 순환의 연거푸 성장을 깨닫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이를 장려함과 동시에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우미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연기'를 자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세대 간 소통의 출발점이 된다.

- 최근에는 남북갈등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남북갈등도 대화와 협력, 압박 등의 유화와 강경의 두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로 인해 최근 북한 제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화-협력-평화-통일이라는 그동안의 통일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만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한쪽에 갇혀 또 다른 방안을 생각

하지 못했다. 심각한 이분법의 오류다. 이런 결과가 개성공단의 잠정폐쇄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북 압박 정책에 매몰돼 기존의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책이 아예 묻히는 느낌이다. 남북갈등 해소,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압박과 대화협력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가 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는 유지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세분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다. 대화와 협력, 평화와 공존, 통일이라는 기초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필요하다.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조차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현재 통일과 관련된 과목이 전무하다. 통일에 대한 교육을 유지된 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중고등학교에 통일 과목을 넣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는 국민이 돼야 한다. 통일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국민들이 많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통일에 대한 방법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미래의 사회통합, 남북

통일이 됐을 때 통일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체제 하에 사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조금씩이나마 심어 줘야 한다.

국제적인 연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핵문제도 사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해결 방안이 보인다.

- 중도연기에 대한 삶의 철학이 드러난다. 양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개개인이 중도연기의 삶을 살기위한 보다 쉬운 방안은 있는가.

방법론으로는 수처작주(隨處作主)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임하려는 말이다. 어디가든 주인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디가든 술선수범,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술선수범해서 일을 할 때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항상 모든 주어진 일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모든 것들에 대해 '아, 이것은 내가 다가온 연이다. 그 가운데 내가 있어 살아있구나' 생각한다.

연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주인으로서 움직여야 한다. 구더기가 독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죽으면 된장이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내가 술선수범해서 남을 위한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 남을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다.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상호 존중이다. 내 것만 소중하고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회 통합이 되지 않는다.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 불자 개개인들은 이러한 국면에서 중도연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보현행원에서 중도연기의 실천법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쉽게 '내가 모든 사람을 예경하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매 순간 '내가 지금 내 앞의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느냐' 등을 돌아보는 것이다. 돌이 말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공경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행주좌와와 참구하는 것이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예배하고 공경하면 내 가난함이 없다. 참회하면 업적이 붙어있을 수가 있다. 예경하고 참회하고 칭찬하면 그 공덕이 나에게로 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해소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사회 통합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원효 스님이 활약한 시대에도 공론(空論)과 유심론(唯心論) 등 각종 사상이 전개돼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왕족과 백성들의 계층 갈등이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원효 스님은 <화쟁론(和諍論)>에 통합의 키워드를 담았다.

원효 스님은 <화쟁론>에서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화쟁(和諍)'이라고 했다. 화쟁에서 쟁(靜)자를 살펴보면 '말(言)'과 '싸움(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상의 대립 갈등은 말로 인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금강삼매경론>에는 '여언이 취개불허(如言而取皆不許) 득의언 무불허(得意而言 無不許)'란 말을 전한다. 말 하는 대로 들으면 용서할 수 없는 말이라도 뜻을 잘 새겨들으면 용서하지 않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대사회에 적용해도 딱 들어맞는다. 다시 말해 소통이야말로 통합의 전제조건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직접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생각과 말하는 법, 듣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통합이 가능하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비난할 때 비난의 말만 들으면 갈등은 고조된다. 하지만 그 근본의 뜻을 이해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갈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말 뿐만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갈등도 그 근본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사회에서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갈등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 지도자들의 술선수범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송석구 이사장. 그가 말하는 소통 속에는 이웃에 대한 애정과 자신에 대한 성찰이 느껴졌다. 갈등고초의 한국사회, 이제는 소통이 답이다.

글=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쫐**”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http://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산 : 010-2310-0404  
인천 : 010-5759-8804  
대구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홍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별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력, 규격확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4구  
민지구 26E 4구, 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 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인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인분홍 백색 금색

▶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영벌 용품**

임자형 S형 T분리형 LEDH형 LEDL형 안전지 초

▶ 방습,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